

태권도원 상설 공연 '확 바뀐다'

태권도진흥재단, 관객 참여형 공연 시간 2배 증가·고객 편의 시설 대폭 확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태권도원 방문객들이 공연장에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인 '2026년 태권도원 상설 공연'을 공개하며 큰 변화를 예고했다.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되는 '2026 태권도원 상설 공연 - 태권비트 파이널'은 창작 품새와 격파, 겨루기 등을 대결 방식으로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도에 따라 승자를 가리는 심사 형태 진행 방식을 채택하는 등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화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회당 20분에서 올해는 40분 이상으로 공연 시간을 대폭 증가했고 100여 장 이상의 송관을 격파하는 등 화려한 공연에 더해 영상과 음향 효과까지 연출하는 등 수준 높은 태권도 공연을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5월부터는 성인 기준 관람료를 1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관람료 유료화에 따라 공연의 질 향상과 함께 관람객들의 편의 사항도 확대할 방침이다. 태권도원 상설 공연장 인근에 별도의 휴식 공간과 공연장 복도에는 태권도원 관광 상품과 사진 촬영 장소를 마련하며 공연 대기 시간 동안 즐길 거리도 마련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유료화에 앞서 4월까지 시



2026 태권도원 상설 공연 - '태권비트 파이널'

범 운영을 하며 평일에는 오후 1회(14:30),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10:30)과 오후(14:30)에 각 1회씩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태권도원 상설 공연은 태권도원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핵심 콘텐츠"라며 "공연 시간 확대 및 유료화 전환 등 운영 방식의 대폭적인 변화에 발맞춰 문화 상품으로 성장한 태권도를 그 가치에 걸맞은 공연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6부 '굿패와 수녀' (4)

문둥이!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생형 시로 제작된 이미지

군경 주둔지에서 한참 떨어진 마을에서는 가끔 잔존세력이 밤을 틈타 출몰하기는 하지만 거의 밤도둑 수준이었다. 명희는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되었지만 그런 걱정은 사치처럼 느껴져 얼른 고개를 흔들어 명희 생각을 털어 내버렸다.

병원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낮설었다. 경계하는 빛이 완연했다.

남준은 의사가 만나보지 못하고 곧바로 지하실로 끌려가듯 안내되었다. 지하실에도 입원실과 같은 방이 있었는데 입원실이 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웠다.

왜 진찰도 하지 않고 이 방에서 대기라고 하는 걸까. 의문을 가지면서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생각이 남준의 목덜미를 덜컥 물었다.

두 시간 쯤 흘렀을 때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들의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임마개로 입을 가리고 하얀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어와 남준을 체포 하듯 끌고는 밖으로 나왔다.

병원 앞에는 구급차가 와 있었고 남준은 억지로 차에 태워졌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남준은 덜컥 겁이 났다. 의사의 진찰도 없었고, 앉고 있는 병을 말해준 사람도 없었다. 그럼에도 더럽고 썩어 문드러진 인분이라도 대하듯 협박하듯 남준을 다루고 있었다.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

사내 하나가 삼지창 눈을 뜨고 남준을 쳐다보며 일갈했다.

"내가 무슨 병인데요?"

사내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구급차에는 이미 다른 사람도 하나 더 타고 있었다. 그의 볼골도 남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얼굴의 한쪽은 오래 묵은 곳감처럼 오돌토돌 돌기가 나 있었고 손도 마찬가지로였다.

구급차는 한 시간 여를 달려 정읍에 도착했고 역시 병원에 수용되었는데 감금되다 시피 했다.

"소록도를 가면 안 돼."

같이 구급차를 타고 왔던 사내가 말했다. 남준은 왜 안 되냐는 눈으로 사내를 바라봤다.

"내가 거기서 도망 나왔거든. 그곳은 치료를 해주는 데가 아니야. 뼈골이 빠지도록 일만 해야 해. 감시원들에게 맞아서 죽는 수도 있어."

"왜, 소록도로 가야하지요?"

"물라서 몰나? 네가 누구인지도 몰라?"

사내는 이런 애송이 같으니라고 하는 눈으로 남준을 바라봤다. 사내의 한쪽 눈은 솟아낸 돌기들로 거의 감기다시피 했고 살아 있는 눈마저도 핏빛이었다.

"너나 내나 문둥이라고 문둥이! 하하하하!"

심판자의 돌망치가 남준의 면상을 탕탕탕 치고 있었다. 한사코 의면해왔던 단어가 남준의 얼굴에 불로 지저 새겨졌다.

남준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한참동안 듣지 않았다. 온 신경이 뜨거운 불에 모두 날아가 버려 진공상태가 되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고개를 들었다.

낙심하는 자체가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문둥이라는 걸 이미 충분히 남준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던가.

"그럼, 어디로 가야지요?"

"나는 동해원으로 가려고 해. 그곳은 그래도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

"동해원은..... 어디에 있어요?"

"고창읍 신월리."

신월리라면 남준의 외가가 있는 곳이다. 남준과 사내는 비교적 쉽게 고창읍 신월리 동해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아직 전쟁 중이었으므로 소록도까지 환자들을 이송하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 바로 밑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초가집들이 에워싸고 있는 형태였다.

남준이 동해원에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 있던 문둥병 환자들은 거의 없었다. 전쟁 통에 모두 사살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을 이룬 환자들은 따로 집을 짓고, 남준 같은 혼자인 사람들은 한집에서 몇 명씩 함께 거처하도록 조치됐다.

완주만의 친환경 브랜딩 기반 공예문화 플랫폼 구축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 개소... 실용·융합형 공예 거점 조성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완주군민 누구나 공예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완주공예 오픈스튜디오'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는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 내 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공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창작·체험 복합 플랫폼이다.

특히 본 공간은 실용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한 공간 설계를 바탕으로, 전시·교육·체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융합형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불필요한 유휴공간(데드스페이스)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공예 특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를 통해 공예인과 군민이 함께 사용하는 열린 창작 환경을 구축하고,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 개소식은 관계기관 및 지역 공예인, 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축사, 사업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시설을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는 정규 창작·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공예 전문 인력 양성, 지역 공예인 간 네트워크 구축, 협업 프로그램 등 공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25일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3월부터 11월까지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茶談)'을 총 5회 선보일 계획이며, 올해 첫 '다담' 공연은 오는 25일 오후 7시 예음헌에서 가진다.

첫 이야기 손님으로는 조용현(강호동양학자)으로, 강호에서 만난 유(儒)·불(佛)·선(仙) 고수들과 교류하며 체득한 사주 명리와 풍수 등 동양학의 눈으로 시대와 인간을 통찰해 온 인물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화두

로 강호의 낭인들과 민초들 사이에서 주로 유통되는 동양학을 일컫는 강호동양학의 의미를 비롯해 운명과 삶의 태도와 내공을 쌓는 방법, 사담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혜를 관객과 함께 풀어낼 예정이다.

또한 삶의 흐름을 읽고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 칭찬과 절제, 배움의 자세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언도 함께 접할 예정이다.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의 전통춤 태평무(太平舞)가 장식, 국가무형유산 태평무는 왕과 왕비의 복장을 하고 태평성대를 기원하



는 뜻을 담은 대표적인 전통춤이다.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는 춤사위로 한국 전통춤의 맛을 전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